

# 삶 속에 심은 예술...세계 명소로 변신한 섬마을의 기적

문화로 키우는  
지역 경제

## 3 나오시마(上)

건축·미술가 뭉쳐 섬 전체 예술작품 도배  
폐가옥→미술관, 목욕탕→설치작품 변신  
매년 방문객 급증...관광지로 바뀌 도시재생

나오시마 = 글·사진 김경민 기자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에도 일본 시코쿠(四國) 가가와(香川縣)현 나오시마(直島)로 향하는 여객선은 승객들로 가득했다. 예술과 환경, 건축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예술섬을 직접 본다는 기대감에 20분의 짧은 항해도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저 멀리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쿠사마 야요이의 '빨간 호박'이 눈에 들어왔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관광객들에게 휩쓸려 빨간 호박으로 향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놓인 예술 작품을 마주하자 탄성이 흘러나왔다. 기대가 감탄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버려진 땅에서 현대미술 메카로=섬 둘레 16km, 인구 3200여명에 불과한 나오시마. 여의도 정도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나오시마는 매년 섬 인구의 100배가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작은 섬의 이 같은 기적은 바로 '예술' 때문이다. 나오시마에서는 섬 어디라도 발걸음을 옮기면 작품들과 마주할 수 있다.

나오시마는 불과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죽어가는 섬이었다. 미쓰비시사가 중공업단지를 건설한 후 70여년이 흐르면서 섬은 구리 제련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8000여명이던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급격히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의 수렁에도 불구하고 섬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섬을 바꾸려는 주민들의 의지와 기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네세그룹은 1997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게 의뢰해 베네세하우스 미술관을 지었다. 이후 지추미술관, 이우환미술관 등을 만들었고, 클로드 모네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으로 섬을 채워나갔다. 그 결과 버려진 폐가가 미술가·건축가에 의해 예술 공간으로 변하고, 미술관·박물관 등이 곳곳에 생겨나는 등 지금은 섬 전체가 예술품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나오시마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지난 2010년에는 방문객이 63만명에 달했고, 현재 가가와현 35개 지자체 중 소득이 가장 높다.

나오시마는 지난 2010년부터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한 세토내해 섬들에 예술을 입히는 '세토우치트리엔날레'를 통해 일본 내해를 '예술 바다'로 바꿔 나가고 있다.

◇빈집을 작품으로 만든 '이에(家) 프로젝트'='이에 프로젝트'는 사람이 떠난 지역의 전통 가옥과 창고 등 7개의 건물을 건축가와 작가들에게 의뢰해 현대미술작품으로 바꾼 나오시마를 가장 대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150~200년 된 전통가옥을 단순히 리모델링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물 자체를 현대미술작품으로 변형시킨 것이 특징이다. 현지 주민과 예술가의 협업을 '주민'과 '예술', '주민'과 '작가'가 자연스럽



이에(家) 프로젝트 작품 중 하나인 '하이샤'는 오토타케 신로가 한때 치과의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작품화 한 것이다. 외부는 폐가 분위기를 강조했고, 내부는 자유의 여신상 등 다양한 회화와 조각 작품들로 장식했다.

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프로젝트는 1997년 주민이 나오시마 주민센터에 오래된 가옥을 기증하면서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7개의 예술작품이 완성됐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1998년 만들어진 1호 작품인 마야지마 타츠오의 '카도야'는 시민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섬 최고령자인 95세 노인부터 5세 아이까지 주민 각자가 세팅한 타이머를 집 곳곳에 배치한 작품이다. "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것이 안내자의 설명이었다.

카도야를 시작으로 돌러본 이에 프로젝트 작품들은 하나같이 인상적이었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고 건물에 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설치된 '미나미테라'. 앞서 작품을 체험하고 나온 사람들의 탄성에 취재진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손의 감각에만 의지해 걸어들어갔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휩싸였다. 순간 '낭떠러지'나 '장애물' 등이 머리를 스쳤다. 간신히 의자에 자리 잡고 앉자 눈이 점차 어둠에 적응하면서 한 줄기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빛을 따라 앞으로 다가가기도 하는 등 경계심을 풀고 감탄사를 내뿜었다. 한 관람객은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다 쓰러져 가던 신사를 작품으로 만든 스키모토 히로시의 '고오진자',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15분간 감상이 가능한 나이트 레이의 '간자', 치과의원을 탈바꿈시킨 오토타케 신로의 '하이샤' 등 버려질 뻔했던 폐가들은 작품으로 재생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나오시마에서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도 뮤지엄', 공중 목욕탕에 예술을 입힌 'I♥湯(U)' 등 이에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섬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iki@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나오시마의 대표적인 작품인 쿠사마 야요이 작 '빨간 호박'.



공중 목욕탕에 예술을 입힌 오토타케 신로 작 'I♥湯(U)'.

## 나오시마 주민센터 하마다 타카오 총장

### “주민 여가 프로그램 다양을 100만 방문 민-관 힘모아 도시 재건...지역경제 활기”

“침몰의 위기에서 나오시마를 구한 것은 바로 예술입니다. 나오시마는 일본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섬입니다.”

나오시마 주민센터 하마다 타카오 총장은 나오시마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했다. 하마다 타카오 총장은 “한해 40~6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섬이 됐지만 베네세그룹과 주민 그리고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투자 중”이라며 “올해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로 인해 모두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날 나오시마가 탄생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예술가와 건축가가 찾아들면서 변화를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대부분 주민이 노인들이었던 탓에 현대미술에 대한 거부감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저조차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하지만 주민들을 작품에 참여시키고,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여가를 제공하면서부터 도시 재생에 대한 노력을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오시마는 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섬에 2곳 뿐이던 음식점이 지금은 30여곳으로 늘었고, 민박집도 점차 생겨나는 등 활기 넘치는 섬이 됐다. 또 주민들은 이에 프로젝트 등 작품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등 작·간접적으로 다양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하마다 타카오 총장은 “단순히 미술관을 짓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도시가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효과는 주민들이 활기를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iki@kwangju.co.kr

다음달  
28일까지

# 50%

# POWER SALE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